

“韓國 圓衫의 由來 糾明을 위한 形態的 考察”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李眞英·金仁淑

目 次

I. 서 론 II. 韓國 圓衫의 고찰 1. 圓衫의 形態 2. 圓衫의 由來에 대한 諸 견해 III. 韓國 長衫의 고찰 IV. 中國 圓衫의 고찰 1. 遼·金의 圓衫 2. 元의 圓衫	3. 明의 圓衫 V. 中國 襦子의 고찰 1. 中國 襦子의 初期 形態 2. 宋의 襦子 3. 金의 襦子 4. 明·清初의 襦子 VI. 결론 참고문헌
--	--

I. 序 論

韓國의 圓衫은 朝鮮時代의 女子禮服으로, 宮中の 嘉禮服에서부터 民間 婚禮服, 襲衣에 이르기까지 널리 착용되었다. 특히 後期에 들어서면 宮中禮服으로 朝鮮 初期부터 착용되던 露衣·長衫·圓衫 등을 대신하여 宮中の 大·小禮服이 圓衫과 唐衣로 집약되고, 일반 婚禮服도 圓衫과 활옷으로 主를 이루게 되어 오늘날까지 圓衫과 활옷은 韓國의 傳統 婚禮服으로서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韓國 圓衫의 由來는 세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統一新羅時代 들어온 隋·唐의 濶袖衣가 高麗·朝鮮朝를 걸쳐 변화하는 중, 長衫의 경로를 밟아 圓衫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朝鮮時代に 明으로부터 王妃 常服으로 賜與된 圓衫이 곧 圓衫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세째는 中國 襦子의 영향 속에서 변화된, 韓國의 歷代 襦子가 朝鮮朝 中·後期에 이르러 無袖로 집약되고, 長袖襦子는 圓衫과 唐衣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이상의 견해들은 제시된 근거들이 문헌 중심이고 구체적 形態에 대한 고증이 부족하여 그 진위가 불명확하다. 이에 문헌 고찰과 더불어 관련 服飾들의 遺物을 고증하여 그 形態를 밝힌 후, 圓衫과의 形態 비교를 통해 圓衫의 由來를 좀더 명확히 해보고자 한다.

上記한 세가지 견해의 타당성을 규명하려면 韓國 圓衫, 韓·中의 歷代 濶袖衣, 韓國의 長衫, 韓·中의 圓衫과 襦子를 모두 고찰하여야겠지만, 資料의 빈곤과 연구자의 역부족으로 본연구의 고찰대상을 韓國 圓衫과 長衫,¹⁾ 中國의 圓衫과 長袖襦子로 한정하였다.

1) 長衫이란 服名은 僧服에서도 볼수 있다. 그러나 이는 圓衫과는 무관하므로 본고에서는 여자 예복용 長衫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服飾을 고찰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문제점은, 인용되는 옛 문헌 기록이 服飾 전문가의 기록이 아니며, 遺物들의 服飾名도 확실히 고증된 명칭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II. 韓國 圓衫의 考察

1. 圓衫의 形態

「四禮便覽」에는 “圓衫이란 家禮의 大袖이고, 일반이 입는 圓衫은 것이 겹치지 않고 마주보게 되며, 뒤가 길고 앞이 짧다. 또 소매단에는 여러가지 색으로 여러층의 옷감을 이어댄다. 이를 燕香袖라 하는데 꺾이하고 적당치 못하다. 만일 燕香袖를 제거하고 前後의 길고 짧음을 없이하여 치마길리와 가지런히 하면, 소매 달린 背子가 된다”²⁾하였고 「居家雜服考」에 “...지금 사람이 말하길, 圓衫은 이것이 婦人의 禮服이라고 한다. 그 制度는 綠色으로 하고 옷깃은 길고 소매는 넓으며, 겨드랑이 아래는 봉하지 않는다. 소매에는 약1寸 넘짓하게 紅, 白, 黃을 이어 소매끝에 이으니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고 이 禮에는 근거가 없다.”³⁾하였으니 당시의 圓衫이 현존하는 圓衫의 形態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現存하는 圓衫의 遺物에는 창덕궁에 소장된 圓衫 2점을 비롯하여 1680年代 李端夏夫人의 圓衫(李鍾厚 소장), 1780年代 和順翁主 圓衫(高麗大學 博物館 소장), 1837年 吉禮 때 입은 德溫公主의 圓衫(石宙善 記念民俗博物館 소장), 1837~1926年 사이에 착용된 것으로 보이는 皇后 黃圓衫을 비롯한 末期의 宮中 圓衫(世宗大學 博物館 소장)과 더불어 後期의 民間圓衫이 다수 있다. 이것들을 고찰해보면 시대와 착용계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볼 수

있지만, 대체적인 韓國 圓衫의 形態의 특징은, 둥근 깃에 앞자락이 겹치지 않고 마주보는 對衿 양식, 옆자락은 겨드랑이 아래부터 트임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앞길이 뒷길보다 짧고, 소매에는 두줄 이상의 색동과 汗衫이 달린 것이다.

2. 圓衫의 由來에 대한 諸 견해

(1) 隋·唐의 潤袖衣가 長衫을 거쳐 圓衫이 되었다는 견해

李瀛의 「星湖僊說」을 보면 “오늘날 婚禮 때 新婦의 禮服으로 입는 潤袖와 大帶, 長裙은 中國의 制度이다. 三國史를 살펴보면 宋의 使臣 劉逵가 우리나라에 와서 鄉粧倡女의 潤袖衣·色絲帶, 大裙을 보고 이 모두 三代의 옷이 여기에 행하여지리라고는 몰랐다 하였다. 지금의 新婦服이 그것이다.” 하였거니와, 三代는 中國의 隋·唐·宋을 가리키는 것이며,⁴⁾ 新羅 文武王 4년(664년)에 婦人의 制服까지 中國의 制度와 같게 고쳤으니 宋使 劉逵가 말한 연유를 알 수 있다.⁵⁾ 이를 토대로 朴京子는 圓衫이 “新羅時代 中國에서 傳來되어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에 女子의 大禮服으로 國俗化되었다.”⁶⁾ 하였고, 柳喜卿도 “활옷과 圓衫은 中國의 袍衫—潤袖衣의 경로를 밟아 오늘의 그것이 되었다.”⁷⁾ 고 하였다.

한편 圓衫과 함께 潤袖衣에 속하는 長衫을 圓衫과 동일시하거나, 이 長衫의 경로를 거쳐 圓衫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은 「四禮便覽」의 다음 기록이다. “옛날에는 婚禮服에 裯衣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玄衣(玄裝)에 분홍색 단을 두른 것이다. 이에 뜻이 있어 그리했던 것인데 지금 俗用되고 있는 紅長衫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다. 禮를 차리는 집안에서는 裯衣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니 習俗이 변하여 다시 점차 옛으로 돌아

2) 李締, 「四禮便覽」, 高福男(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一朝閣), p.26 재해석.

3) 朴圭壽, 「居家雜服考」, 李順洪(1988), “韓國婚禮儀式에 관한 服飾研究: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세종대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p.218에서 재인용

4) 柳喜卿(1986),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454~455.

5) 이현숙(1982), “圓衫考”, 「昌源經商專門大學論文集」I, p.336.

6) 朴京子(1983), 「韓國服飾論攷」, (서울:新丘文化社), p.220.

7) 柳喜卿(1986), 앞책 p.96.

8) 李締, 「四禮便覽」, 柳喜卿(1986), 앞책, p.477에서 재인용.

가는 것인가”⁹⁾ 이를 바탕으로 朴東媛, 이현숙 등은 “裋衣가 長衫의 경로를 거쳐 圓衫과 활옷이 되었다”¹⁰⁾고 한다.

또 「四禮便覽」의 祭條에는 “大衣는 色袖로써 만들며 그 제도는 俗稱 唐衣와 같고, 넓고 크다. 길이는 무릎까지 오고 소매가 크며 소매길이는 2尺5寸(周尺)이며 소매가 둥글다. 一名 大袖 또는 圓衫이라고 하며 즉 五禮儀 本國 長衫이다”¹¹⁾라고 하여 圓衫, 大衣, 大袖, 長衫이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2) 圓衫이 곧 圓衫이라는 견해

圓衫은 朝鮮初期 明으로부터 賜與된 王妃의 冠服으로 王妃 常服이다. 또한 朝鮮中·後期の 「嘉禮都監儀軌」에서도 圓衫이 보이는데¹²⁾ 高福男과 高光林 등은 이 圓衫이 곧 圓衫이라고 한다.

高福男은 그 근거로써, 賜與된 圓衫이 시대에 따라 色이 달라지고 儀軌에는 圓衫이라는 말 대신에 圓衫이 사용된 예를 볼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¹²⁾

한편 高光林은 明의 圓衫의 制度를 문헌 중심으로 祥考한 후, “后妃의 경우에는 圓衫, 命婦 士庶妻의 경우는 圓衫이라고 稱하고 있는데, 同一한 것으로 사려된다”¹³⁾고 하였으며, 또한 大韓帝國의 기록인 「禮服」에서도 “皇后圓衫 一名 圓衫(現行王妃)…”¹⁴⁾라 하여 圓衫과 圓衫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3) 長袖褙子が 圓衫이 되었다는 견해

「四禮便覽」에서는 圓衫의 形態를 설명하면서, “...반일 燕香袖를 제거하고 前後의 길고 짧음을

없이하여 치마길리와 가지런히 하면, 소매달린 背子が 된다”¹⁵⁾라 하여 圓衫이 褙子の 形態와 유사함을 알려준다.

韓國에서의 褙子는 朝鮮 전반기까지 賜與冠服속의 褙子를 비롯하여 長袖의 褙子도 입혀졌지만, 後期에 들어와서는 無袖로, 더 나아가 末期에는 無袖短上衣의 形態로 褙子制가 縮小되는 양상을 보인다.¹⁶⁾ 任明美는 朝鮮 後期에 有袖로서의 褙子가 그 服名을 상실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長袖의 褙子는 圓衫, 唐衣, 蒙頭衣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後期에 와서, 有袖로서 「褙子」라는 服名은 女服에서 사라진다. 그 이유는 英祖代 「國朝續五禮儀」, 「續五禮儀」, 「國婚定例」, 「續五禮儀補」, 「尙方定禮」 등을 制定하여 王妃 이하 命婦들의 大小服制가 制定, 確立됨으로서 이는 歷代 中國의 禮制에 國俗을 加한 것으로 國初의 長袖 「褙子」制는 品이 있는 婦女服에서는 大禮服用 「圓衫」과 小禮服用 「唐衣」가 되고, 妓女나 舞女服에는, 「蒙頭衣」로 되어 國俗을 이루었기 때문이다.”¹⁷⁾

Ⅲ. 韓國 長衫의 考察

1. 長衫의 形態

長衫은 高麗朝부터 女子禮服으로 매우 폭넓게 着用되었지만, 그 실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形態는 알 수 없다. 다만 「樂學軌範」에 실린 女妓服飾에서와 「嘉禮都監儀軌」와 그 班次圖, 歷代 妃嬪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에서 그 形態를 추측할 수 있다.

먼저 「樂學軌範」에 실린 黑長衫(圖1)을 보면, 앞에 넓은 襟이 縫裁되어 있고, 藍綵의 襟袖가 있

9) 朴東媛(1976), “圓衫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4, 이현숙(1982), 앞책, p.335.

10) 李締, 「四禮便覽」, 柳喜卿(1986), 앞책, p.453에서 재인용.

11) 高福男(1986), 앞책, p.245.

12) 앞책, p.245 참조.

13) 高光林(1976),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女子禮服에 관한 研究(I): 圓衫을 中心으로”, 「仁川教大論文集」, 第11集, p.77.

14) 「禮服」, 앞책, p.77에서 재인용.

15) 李締, 「四禮便覽」, 高福男(1986), 앞책, p.246에서 재인용.

16) 任明美(1978), “배子考”, 「대한가정학회지」, 16권2호, p.7, p.16 참조.

17) 앞책, p.10.



〈圖1〉「樂學軌範」의 長衫

(출처 : 高福男(1982), 「朝鮮朝初期의 女子服飾」, p.99)

다. 이 襟袖에 대해서는 끝동인 湄袖로 보는 견해¹⁸⁾와 소매 끝을 걸어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¹⁹⁾가 있다.

領의 경우, 盤領에 걸자락을 제쳐놓은 듯한 특이한 모습으로, 이는 中後期의 儀軌에서 확인되는 長衫의 직선깃과 다르다. 이에 대해 高福男은 “같은 名稱에 깃의 形制가 시대에 따라 변천되었다.”²⁰⁾고 보는데 반해 金明淑은 “妃嬪의 長衫은 他 身分의 長衫과는 그 재료 분량이 다르게 마련되었음을 볼 때, 신분에 따른 복식형태의 차이로 볼 수 있다.”²¹⁾고 하였다. 이 두 견해의 진위를 가리기는 어려우나 盤領에서 直領이란 변화가 동일 服飾의 변화로는 그 차가 너무 크고, 「樂學軌範」의 黑長衫이 女妓의 특수 복식이란 점에서 필자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嘉禮都監儀軌에 실린 長衫의 衣次를 보면, 白色의 同正과 湄袖가 있는데, 그 有無와 材料가 착용계층과 용도에 따른, 長衫의 종류별로 다르다.²²⁾

한편 歷代 妃嬪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에는 服玩으로 마련된 長衫의 圖說이 있어 좀더 명확히 長衫의 形態를 추측할 수 있다.〈圖2〉 다음은 金明淑이 이들 圖說을 고찰하여 정리한 長衫의 形態이



〈圖2〉 長衫:明聖 王后國葬都監儀軌

(출처 : 金明淑(1984) 앞책, p.59)

다. “儀軌에 그려진 妃嬪 長衫의 形態는 直領으로, 동정이 있으며, 右襟으로 겨드랑이까지 완전히 포개어져 여미도록 되었으며 고름은 없다. 소매의 배래선은 곡선 아닌 직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진동 너비와 袖口의 치수가 거의 같게 그려져 있다. 그림을 볼 때 妃嬪 長衫의 앞뒤길이는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長衫의 옆치리이다. 儀軌마다 다르게 옆선을 두줄 혹은 3줄로 층을 이루며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볼 때, 妃嬪 長衫의 옆치리는 단순히 앞뒤를 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옆이 트였거나, 혹은 옆에 주름을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²³⁾

그런데 이러한 長衫의 形態는 후술할 遼, 金代의 直領左襟 또는 右襟의 團衫과 매우 유사하니, 長衫은 高麗朝에 遼·金과의 빈번한 교류 속에서 착용하게 되어 朝鮮朝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 韓國 長衫의 形態를 고찰한 결과, 朝鮮時代의 長衫은 直領右襟으로 겨드랑이까지 포개어져 여미졌으며, 착용계층과 용도에 따라 동정과 湄袖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또 옆자락이 트여있거나 주름이 잡혀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후술하는 明의 團衫처럼 옆자락에 주름분을 넣으면서 트임도 준

18) 高福男(1982), 「朝鮮朝初期의 女子服飾」, 「亞細亞女性研究」 21, p.99.

19) 李惠求譯(1982), 「樂學軌範의 儀章服飾」,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p.159.

20) 高福男(1982), 앞책, p.99.

21) 金明淑(1984), 「朝鮮時代 妃嬪 長衫 및 繡甫老의 一考察: 儀軌服玩圖說을 중심으로」, 「韓國衣類學會誌」 8권3호, p.64.

22) 李順洪(1988), 앞책, pp.187~189 참조.

23) 金明淑(1984), 앞책, p.59.

양식일 수도 있다.

IV. 中國 團衫의 考察

中國 문헌에서 團衫이 처음 보이는 것은 「金史」 輿服志이며, 여기에 기록된 團衫은 遼制라 한다. 이에 遼代부터 明代 洪武년간에 보이는 團衫을 고찰한다.

1. 遼·金의 團衫

「金史」輿服志 중 天眷3年(1140년)에 정한 冠服의 制에, “命婦의 衣服은 團衫으로 黑·紫·靑 및 紺色으로 하였다. 直領에 左襟이며 裾가 양쪽으로 襖주름을 잡아 袷했다. 前자락은 땅에 끌리고 後자락은 1尺 정도 땅에 더 끌렸다. 帶의 색은 紅·黃으로 前에 裳으로 가지런히 늘어뜨렸다.……이 모두가 遼服이고 金 역시 그대로 襲用한다……”²⁴⁾

遼·金의 遺物 중에서 상기한 團衫의 形態와 비슷한 服飾은 <圖3, 4>에서 보인다.



<圖3> 胡裘「卓」圖

(출처: 中華五千年 文物集刊, 服飾篇 下, p.249.)

<圖3>에서는 契丹 女子들의 長袍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形態가 直領左襟에 前자락에 帶 2개를 드리운 점이 기록상의 團衫과 일치한다. 다만 그림으로는 裾가 양쪽으로 襖주름을 확인하기 어렵고, 시종드는 女人의 경우, 앞뒤 길이의 차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활동성이 증시되는 낮은 계급의 服飾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림에는 袍의 領선에 트임이 있어, 前에 착용한 服飾의 다른 색이 엿보인다. 「金史」에서는 트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앞뒤 길이에 차이를 두려면 前에 트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團衫에는 領트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圖4>에서는 女眞의 貴族과 僕從의 모습이 보인다. 이 중 女主人과 3명의 婦女 服裝이 <圖3>과 동일한데, 다만 여밈이 左襟이 아닌 右襟이다. 이는 金이 宋의 北部까지 세력을 뻗치면서 漢族의 右襟 착장 방식에 영향 받은 때문이라 하겠다.



<圖4> 「胡裘十八拍圖」

(출처: 沈從文(民國77), 「中國古代服飾研究」, p.352)

2. 元의 團衫

元代에도 團衫이란 服名이 보인다. 이는 蒙古 婦女의 禮服으로, 漢人이 이를 團衫이라 하였고, 南宋의 漢人들은 大衣라 불렀다.²⁵⁾ 「蒙竊備錄」에 설명된 婦女服飾을 보면, “……中國 鶴鷺과 같은 大袖衣가 있는데 넓고 땅에 끌릴 정도로 길어 걸을 때 양쪽을 여노비가 잡았다”²⁶⁾한다. 이런 모습이 잘 반영된 그림이 <圖5>에 있다. 그리고 <圖6>은 元 睿宗과 后妃의 모습으로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에서는 이 后妃의 袍가 團衫이라 하였다.²⁷⁾ 이러한 婦女의 袍에 대해 周錫保는 “관대하고 길며 大袖에 袖口 부근은 비교적 좁다.”²⁸⁾고 하였다. <圖5, 6>의 女子 袍는 周錫保의 설명처럼 그 길이가 길고 관대하다. 특히 <圖6> 后妃의 團衫은

24) 高光林(1976), 앞책, p.77.

25)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356.

26) 「蒙竊備錄」, 沈從文(民國77),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南天書局), p.389에서 재인용.

27)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下, p.272.

28) 周錫保(1984), 앞책, p.356.



〈圖5〉敦煌壁畫 元代供養人
(출처: 沈從文(民國77), 앞책, p.390)

소매선이 둥글게 뻗어 袖口 부근에서 소매통이 좁아지고 있다.



〈圖6〉「蒙古帝王家居圖」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下, p.338)

3. 明의 團衫

「大明會典」과 「明史」에는 洪武(1368~1398) 永樂(1403~1424)년간에 있었던 冠服의 制定이 기록되어 있다. 〈표1〉과 〈표2〉는 각각 「大明會典」에 실린 后妃의 常服과 命婦·士庶妻의 冠服을 袍류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團衫과 團領衫은 그 色과 金繡·帶의 사용으로 보아 동일 服飾으로 보인다. 또 〈표2〉에서

〈표1〉明代 后妃의 常服用 袍

着用者	制定時期	袍의種類	色	紋樣	材料	備考
皇 后	洪武3年 洪武4年 永樂3年	團衫* 大袖衣 大衫	諸色 眞紅 黃色	金繡龍鳳文 織金龍鳳文加繡飾	紵絲紗羅 紵絲紗羅	帶用金玉 霞帔·紅羅長裙·紅褙子 深青色 바탕에 雲霞龍文을 織金하거나 繡놓은 霞帔
		四稜襖子 (即褙子) 鞠衣	深青 紅色	金繡團龍文		雲龍文을 織金하거나 繡놓은 胸背, 鞠衣色을 따른 大帶사용. 기타 黃色의 綠襖襖子, 紅色의 綠襖裙, 玉帶, 青羅扇 등이 常服에 있다.
皇妃	洪武3年	團衫* 大袖衣	諸色 眞紅	金繡鸞鳳文 織金 및 繡놓은 鳳文		帶用金玉犀, 黃色은 사용하지 않음. 霞帔·紅羅裙·紅羅褙子 등이 있다.
皇	洪武3年 洪武4年	團領衫*	諸色	金繡鸞鳳		黃色은 사용할 수 없고 帶는 金玉犀 사용 皇妃와 같다.

太子妃	永樂3年	大衫	紅色		紵絲紗羅	深青色 바탕에 織金 또는 繡를 하거나 翠, 珠로 圈金飾 한 霞帔
		四稜襖子 (即褙子) 鞠衣	桃紅色 青色	金繡團鳳文	紵絲紗羅	鸞鳳雲文의 胸背·鞠衣色의 大帶가 있다. 기타 綠襖襖子(青色) 綠裙(紅色)·玉帶·玳瑁·青鞵烏 등이 있다.
親王妃	洪武3年 洪武4年	團領衫*	諸色	金繡花鳳		黃色 사용할 수 없고 大帶는 金玉犀를 사용. 皇妃와 같다.

(출처: 「大明會典」, 卷60, 37~62)

〈丑2〉明代 命婦·士庶妻의 冠服

着用者	區分	制定時期	種類	色	紋樣	材料	備考
命婦	禮服	洪武5年	圓衫*	紅	繡重雉 (一品九等: 四品六等 一品八等: 五品五等 二品七等: 六品四等 七品三等, 나머지는 雉文을 수놓지 않았다)	羅	※「明史에선 服飾名이 圓衫, 雉文의 數 一品九等: 四品六等 二品八等: 五品五等 三品七等: 六品四等 七品三等: 나머지는 雉文을 수놓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洪武24年	大袖衫	眞紅 (公侯伯과 一品)	公侯·一品·二品: 金繡雲霞翟衣 三·四品: 金繡雲霞孔雀文	一~五品·紵絲綾羅 六~九品·綾羅袖絹	霞帔의 衣次 및 紋樣도 褙子와 同一하다.
		洪武26年	褙子	深青	五品: 繡雲霞鸞文 六·七品: 繡雲霞練鵲文 一~六品: 上同 七品: 六品과 同一 八·九品: 繡摘枝團花		霞帔 八·九品の 紋樣만 褙子와 다르게 纏枝花를 수놓고 그외는 같다.
	常服	洪武24年	圓領衫*	顔色			
士庶妻	禮服 在室者服	洪武3年 洪武5年 洪武5年	圓衫* 窄袖褙子	淺色 靛染色	金繡하지 않는다.	紵絲綾羅袖絹	

(출처: 「大明會典」, 卷61, 30~38)

는 洪武3年 土庶妻의 冠服에서만 團衫이 보이고 洪武5年 命婦의 禮服에서 團衫이 보인다. 그런데 「明史」에서는 同一한 制定에서 團衫이 아닌 團衫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⁹⁾이로 미루어 團衫과 團衫은 동일 服飾의 명칭이며, 洪武24년에 보이는 團領衫도, 團領衫과 團衫 처럼 團衫의 또다른 명칭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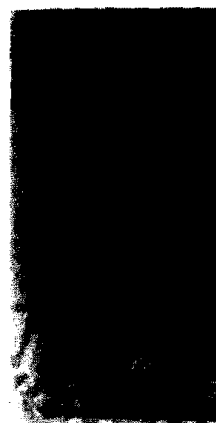
〈圖7, 8, 9〉는 모두 團衫이라 할 수 있는 團領의 大袖衫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圖9〉는 앞그림들에서 볼 수 없는 團衫의 아랫부분과 소매의 배래선을 고찰할 수 있다. 이에서 보이는 團衫의 옆자락은 주름을 잡으면서 트임을 주었고, 소매 배래선은 둥글게 뻗어 袖口에서 좁아지고 있다.



〈圖7〉 明太祖皇后
(출처 : 周錫保(1984), 앞책, p.418)



〈圖8〉 明人「朱夫人」
(출처 : 周迅·高春明(民國77), 「中國歷代婦女妝飾」,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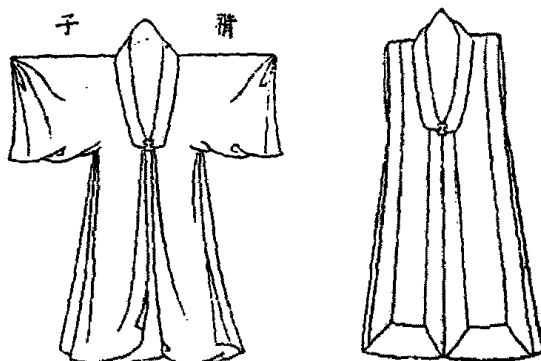


〈圖9〉 岐陽王世子家三世 曹國夫人 袁氏像
(출처 : 沈從文(民國77), 앞책, p.421)

V. 中國 褶子の 考察

1. 中國 褶子の 初期 形態

「事物紀源」의 背子條에는, “實錄에 이르기를 秦의 二世 皇帝가 詔書를 내려, 衫子 위에 朝服을 입고 그 위에 背子를 걸치도록 하였다. 그 背子の 制는 소매는 衫과 같으며 大袖이다. 지금(宋) 또한 길이가 裙과 가지런하고 소매는 衫보다 약간 넓다. 秦에서부터 시작되었다.”³⁰⁾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秦二世로부터 시작되었다는說에 대해 原田淑人は “中國 사람은 사물의 기원이 불분명한 것은 대개 이를 黃帝에게 돌리거나 秦始皇을 빙자하듯 그런 예사로운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背子が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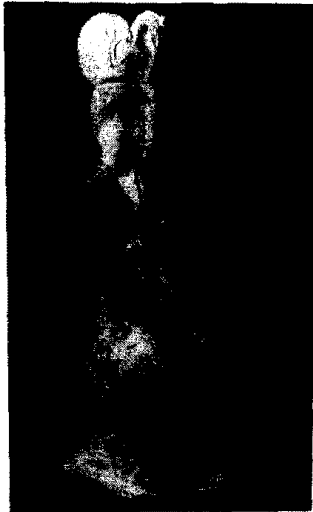
〈圖10〉 「三才圖會」의 褶子(a)와 半臂(b)

29) 張廷玉 等撰, 「明史」 卷67志 12~13 참조.

30) 高丞, 「事物紀源」, (影印版, 台北 : 新興書局, 民國59), p.219.

國固有服制가 아닌 龜茲 于闐 등의 서역 諸邦의 것으로 생각된다”³¹⁾고 하였으니 이는 더 詳考한 과제이다.

〈圖10〉은 「三才圖會」에 실린 褙子와 半臂이다. 그런데 「事物紀原」의 半臂條에는 褙子の 形態가 隋代에 만들어진 半臂와 같다고 하였다.³²⁾



〈圖11〉 唐의 半臂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上, p.209)



〈圖12〉 唐의 半臂

(출처: 앞책 下卷,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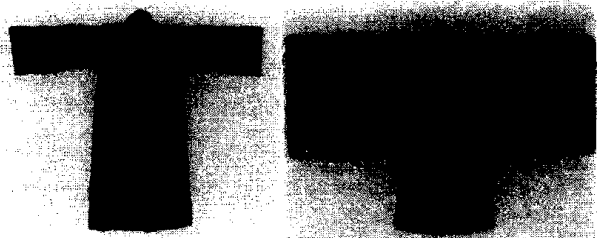
〈圖11, 12〉는 唐代 遺物에서 볼 수 있는 女子의 半臂 착장도이다. 沈從文은 女子의 半臂는 魏·晉 이래 女子의 常服 上衣로서 옷길이는 허리에 미친다고 하였다.³³⁾ 그러나 〈圖12〉에서 보이는 大袖의

襖 위에 입힌 半臂는 그 길이가 무릎 부분까지 미치고 있다. 「事物紀原」의 “衫과 같은 길이의 褙子”와 「中華古今注」에서 “長服으로 삼았다”는³⁴⁾ 褙子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무릎 길이 정도의 形態가 아닐까 한다.

2. 宋의 褙子

宋代의 女子用 有袖 褙子の 形態는 앞에서 인용한 「事物紀原」에서 “……요즘(宋代)의 褙子는 길이가 裙과 가지런하고 소매는 衫보다 넓다”하였으니 그 길이가 길어지고 소매가 넓어진 변화를 알 수 있다. 또 「朱子家禮」에도 “背子條…… 즉 背子로써 大袖를 대신하는데…… 길이는 몸과 가지런하고 小袖의 재봉아 밖으로 드러난다. 이로써 보건대, 요즘은 背子는 長衫이다”³⁵⁾라 하여 褙子の 길이가 길어졌음을 確認할 수 있다.

당시의 長袖 褙子 形態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실물이 〈圖13-a〉에 보인다. 〈圖13-b〉는 〈a〉와 함께 출토된 寬袖袍인데 둘을 비교하면 소매와 襟의 폭 등의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形態가 매우 유사하다.



〈圖13〉 黃昇墓 出土 褙子(a)와 寬袖袍(b)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下, p.290. 292.)

3. 金의 褙子

金代에는 褙子の 일종으로 綽子가 있었다. 이는 정혼한 여자가 착용하였는데, 紅色 혹은 銀褐色과 밝은 金色을 사용하였다. 그 形態는 對襟式으로 부늬가 수놓인 것이 더해졌으며, 앞자락은 땅에

31) 原田淑人(1970), 「唐代之服飾」, (東京: 東洋文庫), p.153.

32) 高丞(영인본, 民國59), 앞책, p.217.

33) 沈從文(民國 77), 앞책, p.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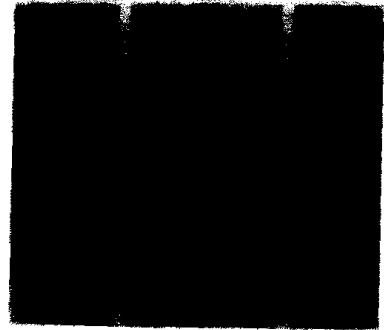
34) 周錫保(1984), 앞책, p.197. 참조.

35) 「朱子家禮」, 周錫保(1984), 앞책, P.311 재인용.

끌릴 정도로 길고 뒷자락은 5寸 정도 더 끌렸다고 한다.³⁶⁾

金の綽子로 보이는 모습이 <圖14>에 있다. 또 문헌의 기록은 찾지 못하였으나 遼의 시녀벽화인 <圖15>에서 가운데 시녀가 褙子를 착용하고 있다.

元代에는 黑色 褙子가 倡家の 복장으로 쓰였다.³⁷⁾한다.



<圖15> 內蒙古哲里木盟 奈林高出土侍女壁畫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 下, p.317)



<圖14> 山西介休金代墓磚雕

(출처: 周錫保(1984), 앞책, p.350~351)

4. 明·清初의 褙子

<표3>은 洪武·永樂年間に 제정된 后婦冠服 중 褙子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明代에도 宋代처럼 褙子가 皇后에서 教坊司婦女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입혀졌으나, 계급에 따른 자세한 규제가 제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3> 洪武 및 永樂時代의 褙子

制定年	신분	用途	衣名	色	무늬		衣次	
					繡法	紋		
洪武年間	三年	皇妃	常服	紅羅褙子	紅		羅	
		親王妃	禮服	四袂襖子·褙子	桃紅	金繡	緞鳳文	紵絲紗羅
		教坊司冠巾服	樂妓服	卓褙子	卓			
	四年	教坊司婦女		窄袖褙子				
		皇后	常服	紅褙子	紅			
	五年	內命婦	常服	褙子				
		士庶妻	女子在室子	窄袖褙子				
		二十四年	一·二品	禮服	褙子	深青	繡	雲霞翟文
	三·四品		"	"	"	"	雲霞孔雀文	"
	五·品		"	"	"	"	雲霞鴛鴦文	"
二十六年	六·七品	"	"	"	"	雲霞練鵲文	"	
	一·二品	禮服	"	"		雲霞翟文		
	三·四品	"	"	"		雲霞孔雀文		
	五·品	"	"	"		雲霞鴛鴦文		
	六·七品	"	"	"		雲霞練鵲文		
	八·九品	"	"	"	繡	摘枝團花文		

永樂三年(1406)	皇 后	常 服	四 袂 襖 子 即 褙 子	深 青	金 繡	段 龍 文	紵 絲 紗 羅	
	皇 妃	禮 服		桃 花 色		段 鳳 文		
	皇 太 子 妃	常 服		桃 花 色				
	親 王 妃	禮 服						
	君 王 妃	冠 服	四 袂 襖 子 即 褙 子	桃 紅 色	金 繡	翟 文	紵 絲 紗 羅	
	長 子 夫 人		褙 子	深 青		翟 文	紵 絲	
	鎮 國 將 軍 夫 人	與 長 子 夫 人						
	輔 國 將 軍 夫 人	與 鎮 國 將 軍 夫 人						
	奉 國 將 軍 夫 人				金 繡	孔 雀 文	紵 絲	
	鎮 國 中 尉 宜 人	與 奉 國 將 軍 夫 人						
	輔 國 中 尉 宜 人				金 繡	鴛 鴦 文	紵 絲	
	奉 國 中 尉 宜 人					練 鵲 文		
	懸 主			深 青		孔 雀 文		
	郡 君					鴛 鴦 文		
鄉 君					練 鵲 文			

(출처 : 박두이, “褙子の 樣式變遷에 관한 考察”, pp.17~18)



〈圖16-a〉孝潔肅皇后像

(출처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 下卷, p.362)

〈圖16-b〉孝懿莊皇后像

〈圖16〉은 明代의 皇后像으로 眞紅大袖衣에 黃色의 大袖對襟褙子, 深青色의 霞被를 착용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大袖衣 위에 褙子가 착용되어 그 褙子の 소매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는 宋代에 褙子制와 비슷했던 寬袖袍와 비슷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일반 婦女의 경우 실내에서는 좁은 소매의 褙子를 사용하였고, 禮服으로 착용할 때는 소매가 크고 통이 넓은 양식이었다.³⁶⁾

明末·清初에는 褙子の 形態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袖口가 확대해지고 옷깃이 짧아졌다.³⁷⁾ 이러한 褙子の 모습은 〈圖17〉의 왼쪽 여자에게서 볼 수 있다.



〈圖17〉「燕寢怡情圖冊」

(출처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 下卷, p.365)

36) 周錫保(1984), 앞책, p.343.

37) 앞책, p.312, 356.

38) 앞책, p.416.

39) 앞책, p.416.

VI. 結 論

이상에서 韓國 圓衫의 由來 규명을 위해 圓衫의 由來에 관련된 복식 중, 韓國의 長衫, 中國의 團衫과 長袖 褙子の 형태를 고찰하였다.

韓國 長衫의 경우, 「嘉禮都監儀軌」와 歷代 妃嬪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에서 고증된 長衫의 형태는 直領 右襟의 長袍로 용도와 신분에 따라 동정과 袴袖가 달리기도 하였다. 長衫의 袂자락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袂트임이나 袂주름 또는 그 두가지 모두가 함께 있는 形態로 추측된다. 이러한 형태는 원삼과는 동떨어진 형태이다.

中國의 團衫은 遼·金·元의 경우 直領·左襟 또는 右襟으로 長衫과 마찬가지로 圓衫과 동떨어진 형태였다. 明代의 團衫은 前代와 달리, 團領 右襟이며 袂자락에는 주름분과 트임이 있는 형태였다. 또 그 명칭에 있어 團衫 외에 團領衫·圓衫·圓領衫 등의 다른 명칭들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韓國 圓衫의 服名이 明代 團衫의 異名인 圓衫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그러나 형태에 있어서는 큰 유사점이 없다.

中國의 褙子は 짧은 소매로 시작하여 宋代 이후 長袖의 長褙子도 출현하였다. 中國의 長袖 褙子は 對衿에 袂트임을 특징으로 하여 韓國 圓衫과 가장 유사한 형태였다. 특히 宋代의 褙子制를 寬袖袍, 明代의 大袖 褙子は, 圓衫의 둥근 깃과 소매의 색동과 汗衫만을 달리할 뿐 圓衫의 形態와 대동소이하다.

이에 韓國 圓衫은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潤袖衣가 長袖 褙子制의 영향을 받으며 국속화하였고, 조선시대 明으로부터 사여 받은 團衫의 異名을 服名으로 취하면서 깃과 문양에 團衫으로부터 다소의 영향을 받아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韓國書〉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일조각, 1986.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서울: 新丘文化社, 1983.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86.

韓國文化財保護協會編,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韓國論文〉

高光林,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女子禮服에 대한 研究(I): 圓衫을 중심으로」, 「인천교대는 논문집」, 11집, 인천교육대학, 1976.

高福男, 「朝鮮朝初期의 女子服飾」, 「아세아여성연구」, 21, 1982.

金明淑, 「朝鮮時代 妃嬪 長衫 및 繡雨老의 一考察: 儀軌服玩圖說을 중심으로」, 「韓國衣類學會誌」, 8권, 3호, 1984.

朴東媛, 「圓衫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박두이, 「褙子の 樣式變遷에 관한 考察」,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이순홍, 「韓國婚禮樣式에 관한 服飾研究: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1988.

이현숙, 「圓衫考」, 「昌源經商專門大學論文集」 I, 1982.

任明美, 「褙子考」, 「대한가정학회지」 16권2호, 1978. 6.

〈外國書〉

高丞, 「事物紀源」 영인판, 台北: 新興書局, 民國59.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南天書局, 民國77.

李東陽 等撰, 「大明會典」.

張廷玉 等撰, 「明史」.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

周迅·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台北: 南天書局, 民國77.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上·下卷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 1970.